

간호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의 관계

Correlations among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Transfer Intention for Core Basic Nursing Skill
in Nursing Students at a Nursing University

김선희, 최자윤, 권영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Seon-Hee Kim(gounbabo@hanmail.net), Ja-Yun Choi(choijy@chonnam.ac.kr),
Young-Ran Kweon(yrk@jnu.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의 정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 간호대학에서 총 6학점의 기본간호학과 1학점의 임상입문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2학년 학생이며,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 학습 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는 높은 수준, 수행자신감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이동기는 학습 자기효능감($r=.49, p<.001$), 수행자신감($r=.30, p=.006$) 및 중요성 인식($r=.31, p=.0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의 전이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이동기와 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간호학생 | 학습 자기효능감 | 핵심기본간호술 | 수행자신감 | 중요성 인식 | 전이동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among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transfer intention for core basic nursing skill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nd grade students at a nursing univers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the transfer intention had a correlation with the learning self-efficacy ($r=.49, p<.001$), confidence in performance ($r=.30, p=.006$),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r=.31, p=.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 inten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in order to develop an effective education program for promoting the transfer intention.

■ keyword : | Nursing Student | Learning Self-efficacy | Core Basic Nursing Skill | Confidence | Perception of Importance | Transfer Intentio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임상 의 다양한 간호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갖추어 임상에서 숙련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강화되고 있다 [1][2]. 이와 관련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1]에서는 전문 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능력, 리더십, 비판적 사고 능력, 법적·윤리적 책임 인식능력 등을 포함한 7가지 핵심역량과 함께 신규 간호사의 직무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술기 역량인 핵심기본간호술 20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기본간호술은 전공 지식과 숙련된 간호술의 통합적 적용이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로, 간호교육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졸업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술기 역량이다 [1]. 이에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은 기본간호학실습, 임상실습, 시뮬레이션실습 등의 교과목에 연계성 있게 편성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2학년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3], 교육의 내용이나 구성은 주로 술기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단순 암기와 반복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임상현장을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습실에서 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들은 전공 교과목을 통합 적용해야 하는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에 수동적인 경향을 보이며, 학습 동기 저하 및 실습지에서의 간호학생의 역할 수행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4].

이러한 실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본격적인 전공 관련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전 임상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핵심기본간호술을 강화시키기 위한 임상입문실습 프로그램[2][5]이나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6][7], 문제중심학습[8]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이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2][5][6], 비판적 사고 능력[2][5], 학습 자기효능감 [7][8] 등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나 훈련 내용의 원리와 기술을 자신 있게 ‘아는 것’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학습에 대한 전이(transfer)로 평가되어야 한다[9]. 전이란 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직무에 활용하고 그 이외의 상황에서 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10], 보통 학습 전이는 통상적으로 학습종료 후 4주-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 그런데 간호학생의 경우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가 강화된 최근의 임상실습 여건 상,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직무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이 측정보다는 전이에 선행되는 전이동기[10]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전이동기는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를 업무환경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노력의 방향성, 강도, 지속성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실제 행동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10]. 이러한 전이동기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학습자 특성 변인이 보고되고 있으며[12], 상사나 동료의 적극적 지원, 교육 만족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또한 훈련에 높은 자신감을 가진 학습자들이 지식이나 기술을 전이하는데 더 많이 동기화되며 [14], 학습자가 교육 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등이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이에 최근 들어 간호교육 분야에서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수행자신감 간의 상관관계 및 핵심기본간호술 학습 경험과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6], 다양한 교육적 중재가 간호술기 수행능력[17]이나 학습 자기효능감[18] 및 전이동기[18][19]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등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이동기와 학습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및 중요성 인식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에 대한 능동적인 학습 능력과 태도를 고취시키고 이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간호교육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간호학생들의 학습 자기효

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2학년 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과 전공 지식의 통합 및 실무 적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소재 A대학교 간호대학 2학년 학생으로 연구대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간호학 이론(4학점)과 실습(2학점) 및 개방형 자율 실습(학생 당 주 2시간) 그리고 겨울방학 중 진행한 1주간의 임상입문실습(1학점)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며, 편의표출을 통해 확보한 연구 참여자 수는 연구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82명이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G-power program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0.3, 예측변수의 수 4로 설정한 후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64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82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완전한 2부를 제외한 80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임상입문실습 종료 1주일 후인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학년 강의실에서 훈련된 연구보조원에 의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연구도구

4.1 학습 자기효능감

학습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학습을 통하여 익힌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인적 신념[9]을 의미하며, Ayres[9]가 개발하고 박신영과 권영란[1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의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7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점수의 범위는 7-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 박신영과 권영란[19]의 연구에서는 .95,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4.2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인 지각 정도[20]를 의미하며, 이인숙과 박창승[20]이 개발한 20문항의 4점 척도(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음 1점~혼자서 매우 잘 할 수 있으며 동료에게 교육 또는 자문해 줄 수 있음 4점)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점수의 범위는 2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3 핵심기본간호술 중요성 인식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신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16]를 의미하며, 김순옥과 강복희[16]이 개발한 20문항의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매우 중요함 5점)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측정 점수의 범위는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4.4 전이동기

전이동기는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를 업무환경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9]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Ayres[9]가 개발하고 박신영과 권영란[1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의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7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점수의 범위는 10-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이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 박신영과 권영란[19]의 연구에서는 .94,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G광역시 A대학교 간호대학장의 연구 허가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전 연구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대상자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을 읽고 본인이 직접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필요 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중도철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는 연구팀의 연락처와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 2)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의 정

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8세로 여학생이 대부분(92.5%)을 차지하였으며, 종교가 없는 학생(57.5%)이 있는 학생(42.5%)보다 다소 많았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6.3%, 대인관계도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7.5%를 차지하였다. 개인적 입학 동기는 적성·흥미(18.7%)보다는 성적(38.8%)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35.0%)에 의해 입학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사회적 입학 동기는 취업 보장과 직업 안정성(82.5%)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한편 간호학 전공에 대해서는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많았지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학생도 32.5%를 차지하였다[표 1].

2.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점수는 52.60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학습 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 점수는 각각 54.81점, 54.47점으로 높은 수준, 중요성 인식은 89.3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2].

한편 핵심기본간호술 20항목에 따른 수행자신감과 중요성 인식 정도는 [표 3]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0)

변수	범주	M ± SD or n (%)
연령	(19-25)	20.8 ± 1.2
성별	남 여	6 (7.5) 74 (92.5)
종교	유 무	34 (42.5) 46 (57.5)
건강상태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3 (3.7) 28 (35.0) 49 (61.3)
대인관계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2 (2.5) 26 (32.5) 52 (65.0)
입학동기: 개인적	적성·흥미 성적 주위 권유 간호사 동경	15 (18.7) 31 (38.8) 28 (35.0) 6 (7.5)
입학동기: 사회적	사회기여·봉사 취업 보장 직업 안정성	14 (17.5) 43 (53.7) 23 (28.8)
전공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6 (7.5) 20 (25.0) 49 (61.3) 5 (6.2)

표 2.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

(N=80)

변수	M ± SD		범위	
	Total	Mean	Total	Mean
학습 자기효능감	54.81 ± 9.45	5.48 ± 1.11	7-70	1-7
수행자신감	52.60 ± 9.88	2.63 ± 0.75	20-80	1-4
중요성 인식	89.36 ± 13.65	4.47 ± 0.69	20-100	1-5
전이동기	54.47 ± 9.71	5.45 ± 1.19	10-70	1-7

표 3. 핵심기본간호술기별 수행자신감과 중요성 인식

(N=80)

변수	수행자신감 M ± SD	중요성 인식 M ± SD
활력징후	3.78 ± 0.44	4.68 ± 0.56
경구투약	3.51 ± 0.59	4.12 ± 0.81
근육주사	2.57 ± 0.78	4.18 ± 0.83
피하주사	2.61 ± 0.81	4.44 ± 0.69
피내주사	2.46 ± 0.79	4.36 ± 0.76
정맥수액주입	2.18 ± 0.78	4.76 ± 0.46

수혈요법	1.71 ± 0.77	4.50 ± 0.72
위관영양	2.20 ± 0.69	4.20 ± 0.80
단순도뇨	2.99 ± 0.74	4.46 ± 0.67
유치도뇨	2.70 ± 0.78	4.51 ± 0.65
배출관장	2.30 ± 0.88	4.09 ± 0.88
수술 전 간호	2.59 ± 0.73	4.37 ± 0.68
수술 후 간호	2.60 ± 0.71	4.52 ± 0.61
입원 관리하기	2.90 ± 0.83	4.16 ± 0.84
보호 장구 착용	3.15 ± 0.72	4.41 ± 0.65
산소포화도 측정 및 심전도 모니터 적용	3.21 ± 0.70	4.45 ± 0.69
산소요법	2.49 ± 0.76	4.44 ± 0.67
기관 내 흡인	2.29 ± 0.85	4.46 ± 0.63
기관절개관 관리	2.13 ± 0.81	4.32 ± 0.75
심폐소생술	2.16 ± 0.89	4.71 ± 0.5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4]. 학습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개인적 입학동기($t=4.86, p=.004$)와 전공만족도($t=6.2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동경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전공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다. 또한 전이동기는 대인관계($t=4.47, p=.01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중 비교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 보통인 편보다 전이동기 점수가 높았다.

4. 학습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 간의 상관관계

전이동기는 학습 자기효능감($r=.49, p<.001$),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r=.30, p=.006$) 및 중요성 인식($r=.31, p=.005$)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5].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80)

변수	범주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중요성인식		전이동기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성별	남 여	52.43 ± 9.68 55.03 ± 9.47	0.69 (.490)	63.43 ± 13.95 51.61 ± 8.90	-2.20 (.067)	88.57 ± 10.01 89.43 ± 13.99	0.16 (.874)	51.14 ± 9.26 54.78 ± 9.75	0.95 (.347)
종교	유 무	54.49 ± 8.50 55.04 ± 10.75	0.26 (.793)	52.03 ± 8.06 53.02 ± 11.08	0.45 (.654)	88.46 ± 8.73 90.02 ± 16.40	0.51 (.609)	55.00 ± 9.45 54.08 ± 9.98	-0.42 (.674)
건강상태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47.50 ± 14.93 55.34 ± 7.03 55.08 ± 10.15	1.27 (.286)	49.25 ± 4.79 52.41 ± 9.08 52.98 ± 10.66	0.27 (.766)	96.00 ± 4.62 91.00 ± 19.60 87.88 ± 9.14	0.98 (.381)	60.00 ± 11.05 54.17 ± 8.73 54.20 ± 10.21	0.68 (.511)
대인관계	나쁜 편 ^a 보통 ^b 좋은 편 ^c	60.00 ± 0.92 53.25 ± 9.64 55.43 ± 9.48	0.79 (.455)	53.50 ± 13.44 53.64 ± 10.45 52.02 ± 9.63	0.25 (.778)	81.50 ± 17.68 89.61 ± 19.96 89.53 ± 8.86	0.33 (.717)	63.00 ± 4.24 50.43 ± 9.44 56.28 ± 9.33	4.47 (.014) b < c
입학동기 (개인적)	적성·흥미 ^a 성적 ^b 주위 권유 ^c 간호사 동경 ^d	57.20 ± 6.29 55.78 ± 9.83 51.97 ± 10.50 57.00 ± 7.12	1.46 (.233)	52.93 ± 9.07 53.03 ± 8.87 50.31 ± 10.61 59.43 ± 11.34	1.70 (.173)	89.80 ± 6.29 87.13 ± 9.83 87.41 ± 10.50 106.71 ± 32.84	4.86 (.004) a,b,c < d	53.13 ± 8.69 56.75 ± 9.31 51.79 ± 9.73 58.00 ± 11.89	1.78 (.159)
입학동기 (사회적)	사회기여·봉사 취업 보장 직업 안정성	55.29 ± 11.75 55.80 ± 9.57 52.67 ± 7.64	0.88 (.419)	56.71 ± 9.71 50.80 ± 8.04 53.58 ± 12.37	2.14 (.125)	88.00 ± 9.55 87.58 ± 9.57 93.50 ± 20.30	1.58 (.213)	56.50 ± 8.43 54.49 ± 10.52 53.25 ± 8.96	0.49 (.615)
전공 만족도	매우 불만족 ^a 불만족 ^b 만족 ^c 매우 만족 ^d	48.00 ± 6.22 57.00 ± 8.54 54.28 ± 9.96 60.40 ± 6.77	2.33 (.081)	47.00 ± 7.05 52.38 ± 8.78 53.12 ± 10.76 56.20 ± 6.98	1.02 (.388)	88.71 ± 7.85 87.19 ± 9.57 88.02 ± 9.55 112.80 ± 37.65	6.27 (.001) a,b,c < d	48.14 ± 8.17 54.67 ± 10.90 55.30 ± 9.22 54.20 ± 10.92	1.12 (.345)

*Scheffe test
p < .05

표 5.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N=80)

변수	자기 효능감	수행 자신감	중요성 인식	전이 동기
자기 효능감	1			
수행 자신감	.14	1		
중요성 인식	.21	.00	1	
전이 동기	.49**	.30**	.31**	1

** p < .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2학년 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학습 자기효능감 점수는 54.81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 교육을 시행한 박신영과 권영란[19]의 연구에서 교육 시행 전 측정된 자기효능감 점수인 53.34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자기효능감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김순옥과 강복희[16]의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학습 자기효능감 점수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기본간호학 이론과 실습 교과목, 그리고 1주간의 임상입문실습교과목을 마친 2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학년이나 양적인 학습 경험 횟수보다는 Bandura[21]가 제시하는 대상자 개인의 내적인 요인이나 외부 환경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점수는 52.60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대해 연구한 김순옥과 강복희[16]의 연구에서 3학년의 1학기 학생의 수행자신감 점수와 유사하였으며, 졸업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애경, 조동숙, 원종순[3]의 연구결과보다는 다소 성적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내 실습실 실습과 교외 임상 실습을 풍부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이 많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아진 기존의 연구[3][16]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활력징후로 나타났고, 다음 경구투약,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단순도뇨 순으로 나타났다.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순옥과 강복희[16]의 연구에서는 활력징후가 가장 높았고, 다음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입원관리하기, 경구투약,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순, 졸업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애경, 조동숙, 원종순[3]의 연구에서는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측정, 경구투약,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산소요법 순으로 나타나 단순도뇨 항목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단순도뇨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순옥과 강복희[16]의 연구에서는 수행자신감이 낮은 하위 10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한애경, 조동숙, 원종순[3]의 연구에서는 하위 5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총 6학점의 기본간호학 이론과 실습 교과목(학생당 주 2시간의 개방형 자율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고 1주일간의 임상입문실습을 마친 2학년 학생이다. 임상입문실습은 연구대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1일 9시간, 총 5일간 진행되었으며, 8시간 중 4시간은 임상 관찰 실습, 나머지 4시간은 교내 실습실 실습(4분반, 1분반 당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습 5일째에는 교내 실습 시 20학점의 핵심기본간호술 중 1항목인 단순도뇨를 평가하였다. 단순도뇨 항목의 경우 임상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때문에 실습실에서라도 술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학습 경험을 증가시켜 본 연구에서 단순도뇨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상승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임상실습 환경이 활력징후 등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수행자신감이 낮은 항목은 실습실에서라도 실습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수행자신감 점수가 매우 낮았던 수혈요법, 정맥수액주입, 기관절개관 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술기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활용한 교육[22]과 동료 교수학습을 적용한 자율실습 운영[23] 등을 통해, 특히 심폐소생술은 졸업 전 BLS (Basic Life Support) Provider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자신감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총점 89.36점, 평점 4.47점으로, 김순옥과 강복희[16]의 연구에서 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의 점수보다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간호학 교과목을 이수한 지 불과 2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임상입문실습을 통해 임상현장을 첫 경험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배수현과 박정숙[24]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배수현과 박정숙[24]의 연구대상자들은 간호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병원 취업을 앞두고 있

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상위 25% 항목은 정맥수액주입, 심폐소생술, 활력징후, 수술 후 간호, 유치도뇨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25% 항목은 배출관장, 경구투약, 입원관리하기, 근육주사, 위관영양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항목인 정맥수액주입, 활력징후, 그리고 하위 항목인 배출관장, 입원 관리하기는 김순옥과 강복희[16]의 연구결과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김순옥과 강복희[16]의 연구에서 심폐소생술은 낮은 항목으로, 근육주사는 높은 항목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병원의 등급이나 실습 병동의 특성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김순옥과 강복희[16]의 연구에서 수술 후 간호가 하위 50%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점, 보호 장구 착용이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한 항목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장은희, 모문희, 최은혜[25]의 연구에서 수술 전, 후 간호, 보호 장구 착용 항목이 상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본 연구자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전이동기 점수는 총점 54.47점, 평점 5.45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전이동기를 살펴 본 선행 연구가 드물고, 측정 도구가 달라 직접적으로 결과를 비교해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인숙과 박창승[20]이 간호 대학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간호술기를 실제 임상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습전이를 측정한 연구에서 학습전이 점수는 3.50점이었다. 이인숙과 박창승[20]이 사용한 학습전이 측정도구는 5점 척도로, 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7점 척도로 변환하여 계산하면 학습전이 점수는 5.32점이 되며,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본 연구 대상자의 높은 전이동기 점수는 대상자들이 실습 마지막 날 작성한 아래의 실습성찰일지를 토대로 볼 때 이론과 실습실 실습이 임상실습과 연계된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습 첫날, 실습실에서 하던 인형놀이의 마네킹은 실제 환자로 바뀌어 있었고... 그러나 기본 간호학 시간에 배운 이론이나 핵심기본간호술은 모두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관찰해보지 못한 숙기도 많았으며 그 중 몇 가지를 실제 수행해보았으나 그마저도 매우 어렵고 미숙했다.

솔직히 첫 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웃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3, 4학년 동안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니 지금까지 그냥 흉터보내기만 했던 수업들과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다.

왜 3학년 때 공부할 게 많으면서도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 것 같았다. 잘 모르는 내용이나 불명확한 내용은 용기를 가지고 다른 조원이나 간호사선생님, 그리고 교수님들께 적극적으로 여쭙보면서 알아가야겠다.

그러나 임상입문실습 교과목 이수를 통해 전이동기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임상입문실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이동기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 보통인 편보다 전이동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 또한 이인숙과 박창승[20]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의사소통으로[26], 의사소통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4주간 7회에 걸쳐 자기인식, 타인이해,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여 의사소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전이동기 점수가 대조군보다 높아진 선행연구의 결과[27]를 고려하면 대상자들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학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전이동기는 학습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및 중요성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이동기와 학습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종료 직후 전이의도에 참가자의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2], e-러닝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8]의 결과가 본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 후 학습 자기효능감이 타 학문 분야에서 학습 전이 또는 전이 동기의 핵심적인 선행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간호학 분야에서도 학습 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습 자기효능감이나 전이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 연구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중재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전이동기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전이동기와 핵심기본간호술 중요성 인식간의 관계를 타 학문 분야의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Seyler 등[14]은 학습자들이 컴퓨터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때 컴퓨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지식이나 기술을 전이하는데 더 많이 동기화된다고 하였으며, Holton[15]은 학습자가 교육 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인식하는지 등이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 분야에서도 이들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간호학생의 전이동기 증진을 위해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과 중요성 인식 수준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김순옥과 강복희[16]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네킵을 이용한 실습실 실습과 관찰 위주의 짧은 임상 실습 등으로 인해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이 학습 자기효능감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개 대학 간호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나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표본수가 적어 설명 수준의 연구에 그친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연구 대상자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이동기에 관한 심층적인 구조를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2학년 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 중요성 인식 및 전이동기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입문실습을 마친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학습 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는 높은 수준,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 자기효능감이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에 대해 자신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핵심기본간호술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전이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주된 관심이 자신감이나 수행능력 향상과 같은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었다면, 간호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간호학생들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확장 및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재창출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하나마 일조를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 또 비단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전이동기뿐 아니라 다양한 간호학적 지식과 기술

에 대한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 전이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http://kabone.or.kr/kabon02/index.php>
- [2] 서인순, 오수민, 최동원, 박희옥, 마예원, “기초임상실습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비판적사고 및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2276-2283, 2014.
- [3] 한애경, 조동숙, 원종순,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과 수행자신감 조사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62-173, 2014.
- [4] 김연자, 진미환,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실기 참여경험,” 질적 연구, 제13권, 제2호, pp.105-116, 2012.
- [5] 송경애, 박현정, 엄혜아, 이종은, 주가을, 김희주, “간호학 임상 실습 입문 교육과정(Introduction to Clinical Nursing) 개발과 교육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22-333, 2012.
- [6] 이숙정, 박영미, 노상미, “하이브리드모델 활용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제25권, 제2호, pp.170-182, 2013.
- [7] 오혜경, 한영인,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4권, 제1호, pp.33-40, 2011.
- [8] 강승주, 김은주, 신해진, “문제중심학습(PBL)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pp.33-41, 2016.
- [9] H. W. Ayres,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05.
- [10] 이유진, 김진모, “대기업 직무교육훈련 참여자의 교육훈련전이와 전이동기 및 업무환경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2권, 제4호, pp.249-274, 2010.
- [11] R. Bates, S. Kauffeld, and E. F. III. Holton, “Examining the factor structure and predictive ability of the German-version of the Learning Transfer Systems Inventory,” J.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31, No.3, pp.195-211, 2007.
- [12] J. S. Park and J. M. Kim, “Predictors of the Transfer Intention of the Participants in a Corporat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18, No.4, pp.49-79, 2016.
- [13] 정애경, 홍유나, 강정진, “기업 모바일러닝에서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용성, 상사 및 동료지원, 만족도, 전이동기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189-196, 2016.
- [14] D. L. Seyler, E. F. Holton, R. A. Bates, M. F. Burnet, and M. A. Carvalho, “Factors affecting motivation to transfer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Vol.2, No.1, pp.2-16, 1998.
- [15] E. F. III. Holton, “Holton’s evaluation model: new evidence and construct elaboration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 Vol.7, No.1, pp.37-54, 2005.
- [16] 김순옥, 강복희,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 중요성인식과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172-182, 2016.
- [17] 류세인, 김애경, “Bloom의 완전학습모델 적용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만족

도 및 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499-508, 2017.

[18] 김순옥, 김현숙, “모의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이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 자기 효능감,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396-408, 2014.

[19] 박신영, 권영란, “표준화 환자를 적용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교육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21권, 제1호, pp.79-88, 2012.

[20] 이인숙, 박창승,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영향 요인,” 기본간호학회지, 제22권, 제3호, pp.297-307, 2015.

[21]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22] 김묘경, 이형숙,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활용한 교육이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성취도,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28-137, 2017.

[23] 유명란, 강명숙, 김혜원, 한혜리, 최주영, “동료 교수학습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숙련도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3권, 제1호, pp.27-36, 2017.

[24] 배수현, 박정숙,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학습성과 성취도와 중요도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03-214, 2013.

[25] 장은희, 모문희, 최은희,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인식과 수행 빈도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1264-1272, 2015.

[26] 이어진, 최수미,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제16권, 제4호, pp.209-224, 2015.

[27] 오연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학습전이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8] 김은희, “e-러닝에서 다차원적 자기효능감이 학

습만족,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 고객센터 종사자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8권, 제2호, pp.51-67, 2017.

저 자 소 개

김 선 희(Seon-Hee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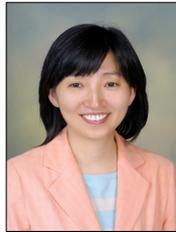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간호학 석사)
- 현재 :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운동이행)

최 자 윤(Ja-Yun Choi)

정회원



- 1994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간호학 석사)
- 2000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7년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중환자간호학, 근거기반간호학

권 영 란(Young-Ran Kweon)

정회원



- 200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간호학 석사)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7년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간호,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